

행위와 의미의 지평 | 홍수연 개인전, Vestibule 포스코미술관, 7.12 - 8.9

우리 인간의 보편적 삶은 행위와 의미에 의해 구성된다. 행위의 발현을 통해 의미의 구조를 획득해가는 것은 아주 다분히 인간적인 양태이며, 그런 양태들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삶의 형식들을 획득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연의 작품은 의미의 속성을 구축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표출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작품에서 그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깊이와 표면적인 구조의 충돌 혹은 모순의 공존이다. 그것은 그녀의 회화작품 제목들을 통해 암시되는 작가의 의도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전시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전적인 캔버스 형식의 회화 작품들이고 다른 하나는 덧칠된 물감들을 벗겨내 물감 자체로 구성되는 겹질 시리즈 설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비되는 형식으로 작품 의미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예술적 장치이기도 하다.

회화 작품들의 제목은 '즐거운 평형(Playful Equilibrium)', '하늘(The Firmament)', '틀

(Template)', '융합(Merge)' 같은 제목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물감을 뜯어내 설치한 작품들은 'Membran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 제목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동기가 어떠하든간에 그녀 작품의 이 두 가지 방식으로의 현실화는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선 형식적으로 회화는 관객이 사물을 보는 방식의 연장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관객들은 그들의 눈으로 확인되는 이미지들을 통해 그들 마음의 심리적인 반응을 스스로 주시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유도되는 종류의 것들이다. 관객은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들에 대한 이런 작용적인 개입(a functional involvement)을 통해 의미의 기본적인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겹질 시리즈 작업들에서는 보는 것보다는 단위적 개체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이 관객의 반응을 구성하는 주요 형식이 되는 것이고, 작가는 그런 개체들의 존재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단 자신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런 껍질들로 공간을 메꾸어 본다. 마치 눈속임처럼 벽에 붙어 있어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생가다 만 것 같은 형태들의 껍질들은 공간에 옮겨져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평면에서 입체로의 변화와 공간의 자유로움에 의해서 이 작업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성격이 지닌다.

- 작가 작업 노트 중에서

그러나 이런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 작품에는 다른 차원의 일관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의도된 일관성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내는 작품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해석학적인 일관성이다. 즉, 그녀 작품에서는 우리 삶의 음극과 양극 -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가치판단의 차원이 아닌 - 의 공존을 동시에 제시하는 그런 모순성, 즉 인간 삶의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의 표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것은 그녀가 무형형적인 형상을 객체적인 통일감을 보여주는 배경의 화면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인해, 그리고 공간을 배경으로 설치하는 '껍질 시리즈' 작품들을 통해 적절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적인 이미지들은 관객에게 어떤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이 불안감의 정체는 본질적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형태들의 시각적, 물리적 유동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작가가 작품에 관한 자신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투명성이 형태들의 유동성을 고정시켜주는 정착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정성은 안정을 향한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즉 형태에 내재하는 자체의 무게중심, 즉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에 대한 지향성이 불안정성의 근원을 순회시켜 예술적 상황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객체화된 형태가 만들어내는 객관성은 삶의 다양한 현

상들이 드러내는 대립적인 상황과 삶 속에서의 공존이라는 현상으로 일반화된다. 이것은 일종의 화해로 음극과 양극의 대립과 같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대립성을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무의미의 의미성을 탐구하는 일종의 철학적인 사색 혹은 시간의 순환이라는 우주적 필연성을 제시하는 예술적인 행위로 변화시킨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작가는 행위를 통해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이미지의 명증성을 통해 삶의 이야기들을 전개시키지도 않는다. 그녀의 이런 중심적인 태도는 삶과 예술의 관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삶의 본질로부터 발생해 진화되어가는 과정적인 것이라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예술작품이 행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고, 사색을 통해 드러나는 추상적 결과물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녀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 - 일종의 '틀(Template)'이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 '前室(Vestibule: 전정기관)'은 그녀의 이런 세계관을 잘 드러내준다.

그녀는 그녀가 말하는 '투명함'의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녀에게 투명함은 작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축적을 정화시켜 삶의 일상성으로 되돌려 놓는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중간에 존재하는 '베스티불'은 그녀 작품의 형태와 배경 사이의 중간 지점, 혹은 의미와 행위 사이의 중간 지점을 말한다. 이것은 20세기 후반 예술적인 혹은 작가적인 사유와 현실적인 양태간의 구분별을 옹호한 개념주의자들의 미학적 의도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개념미술(conceptual art)이 불러일으킨 영향력의 문제를 떠나 홍수연 작업에 내포된 개념의 지평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작품을 통해 볼 때 홍수연이 말하는 투명함은 개념이 아니라 그녀 삶의 진행과정을 포용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행위를 통해 의미를 찾지도 않고, 의미 축적이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동원성, 축적, 화상과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개념들의 발전적인 상황이 아니라 삶의 가변성에 기반을 둔 현상들의 이질성에 관한 것이다. 결국 그녀에게 미술은 이 세계에 관해 서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의 모습을 적절히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다.

정용도 글 · 미술평론가